

만성지구~기지제 잇는 보행육교 임시 개통

전주시, 3월 정식 준공 이전 '편리한 보행환경' 제공 위해 16일부터 이용 가능

전북혁신도시와 만성지구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앞으로 서부권 대표 친수공간인 기지제까지 안전하게 걸어들 수 있게 됐다.

전주시는 덕진구 만성서로 37 일원 만성지구와 전북혁신도시 기지제를 연결하는 보행육교가 오는 16일부터 임시 개통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임시 개통은 행정절차의 완결보다 시민들이 겪는 실질적인 불편 해소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시는 만성지구와 기지제 수변공원을 잇는 보행육교의 주요 공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3월 정식 준공 이전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안전 점검을 거쳐 보행육교를 임시 개통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총사업비 44억원이 투입된 해당 보행육교는 연장 216m, 폭 4.4m의 규모로 조성됐으며, 육교 개통으로 만성지구 주거 단지와의 기지제 산



전북혁신도시와 만성지구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앞으로 서부권 대표 친수공간인 기지제까지 안전하게 걸어들 수 있게 됐다.

책로 사이의 보행로가 하나로 연결된다.

특히 단순히 길을 잇는 것을 넘어 '보행자 중심'의 설계가 반영된 이 육교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생활권 내 보행 동선을 효율적으로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횡단보도를 통해 멀리 돌아가야 했던 보행 동선이 크게 단축됨에 따라 주민들의 산책 및 여가

활동이 한층 편리해지는 것은 물론 수변 상권 활성화와 만성지구 전반의 정주 여건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향후 임시 개통 기간 중 시민들의 이용 의견을 수렴해 불편 사항을 보완하고, 오는 3월 최종 준공을 목표로 남은 공정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야간에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즐겁게 산책할 수 있도록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주변의 식재 및 환경 정비를 마무리해 기지제 수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전주만의 보행 친화적 랜드마크를 조성할 방침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하루라도 빨리 시민들에게 편리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임시 개통을 결정하게 됐다"면서 "오는 3월 최종 준공 시점에는 기능적인 편리함은 물론, 도시 미관까지 살린 완벽한 보행육교를 만나보실 수 있도록 남은 공사 마무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청년 취업 지원 나선다

20일까지 고용 촉진 사업 참여기업 모집

전주시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2026년 청년 취업 2000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18~39세 미취업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인력수급을 돕고자 추진하는 고용 촉진 사업으로, 시는 오는 20일까지 참여기업을 공개 모집하고 청년 1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공개모집과 서류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는 최대 1년간 매월 70만 원의 채용 지원금이 지원된다. 또한 청년의 정규직 전환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기업에 취업한 청년 취업자에게는 2년 연속 시 최대 300만 원의 취업장려금도 지급한다.

신청 자격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인 전주지역

기업으로, 상시 고용인원 외 정규직 추가 채용계획이 있고 매월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전주시 누리집(www.jonju.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한 후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20일까지 전주시 청년일자리과(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29, 전주시청 별관 9층)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전주시 청년일자리과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미취업 청년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은 우수 인력을 채용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의 취업 기회 확대와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기린대로 BRT 구축, 가로변 수목 이식 완료

전주시, 첫 번째 공정 완료

전주시가 대중교통 혁신을 이끌 기린대로 BRT(간선급행버스체계)의 첫 번째 공정인 가로변 수목(가로수) 이식을 완료했다.

시는 기린대로 가로변에 위치한 가로수 약 360주를 종합리사이클링타운 내·외부에 옮겨 식재하는 작업을 안전하게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옮겨 심은 장소는 종합리사이클링타운 인근의 경계부와 도로변, 완충녹지

대 등으로, 약취 저압에 유용한 은행나무와 활엽수가 식재됐다.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부득이 수목이 이동이 필요함에 따라 조경 분야 설계 원칙을 정하기 위해 실시설계 단계인 지난 2024년 4월부터 수 차례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왔다.

그 결과 △생육 상태에 따라 이식(상·중), 제거(하) 수량 구분 △환착물 제거 위한 토양개량제 등 첨가한 토양 이식 △수기적으로 관수 등 정해진 원칙에 따라 실시설계안 만들어 도

시수 심의를 통과했다.

이와 관련 기린대로 버스중앙차로제(BRT)는 여의광장사거리에서 한벽교 교차로까지 9.5km 구간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시는 오는 11월 개통을 목표로 △여의광장사거리~추천대로 △추천대로~기린로전차상가 △기린로전차상가~오목대의 3개 구간에서 동시에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으로, 시는 신속한 공정 추진 및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공사 중 교통처리계획

과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가로변 수목 재조성 △중앙분리대 수목 이식 △중앙상강 내부 식재 조성 등 조경 관련 공정을 추진할 예정으로, 기린대로의 녹지면적은 이번 이식에도 불구하고 기존 대비 약 8% 증가하게 된다.

김용삼 전주시 대중교통국장은 "BRT 사업은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 가기 위한 혁신적인 사업으로, 첫 번째 공정인 가로변 수목이 상생 발전 가능한 리사이클링타운으로 안전하게 이식을 완료했다"면서 "앞으로 본격적인 공사 과정에서 불편을 최소화하고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의회는 12일 의정실에서 남관우 의장과 윤혜정 의원, 전북친환경유류사업단 유기수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푸드사랑농부들 아동복지 기부금(300만원) 전달식을 가졌다.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전주시 창업보육센터 신규 지정

전주시와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원장 허진)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가 창업보육센터(BI, Business Incubation Center)로 신규 지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창업보육센터는 예비 창업자와 초기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사무실 등 물리적 공간은 물론 연구·개발 인프라, 경영·기술 자문 등 종합적인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진흥원은 이번 창업보육센터 지정을 통해 기존 1인 창조기업 중심의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예비 창업자와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보육공간과 맞춤형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앞으로 △입주 공간 제공 △창업 맞춤형 컨설팅 △사업화 지원 △네트워킹 및 판로 지원 등 예비·초기 창업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을 돕는 종합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이에 앞서 진흥원은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입주기업 288개사를 발굴·육성해 왔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고 세액 할인 받아요"

전주시는 1월 한 달 동안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3월, 6월, 9월 중 한꺼번에 납부하면 세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특히 1월에 연납할 경우에는 2월부터 12월까지의 세액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올해도 할인된 금액으로 자동 고지되며, 고지서는 이달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신규 연납을 신청하길 원하는 시민은 위택스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 신청 및 납부할 수 있으며, 구청 세무과나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매매한 경우에는 사용 기간에 따라 자동차세 차액이 환급된다.

납부 방법은 △가상계좌(전북·농협·국민은행) △직상계좌(전주·농협·국민은행) △ARS(142211) △위택스 △모바일 간편결제 앱 △금융기관 방문 등 다양하다. 또, 가까운 동 주민센터, 완산·덕진구청 세무과, 전주시청 세정과(대우빌딩 7층)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의회, 전주푸드사랑농부들 아동복지 기부금 전달식

전주시의회는 12일 의정실에서 남관우 의장과 윤혜정 의원(복지환경위원회, 유아·2, 호성동), 전북친환경유류사업단 유기수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푸드사랑농부들 아동복지 기부금(300만원)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한 기부금은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먹거리 돌봄 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윤혜정 의원은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나눔이 지속되고,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의

회차원에서 관심과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남관우 의장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 모두의 책임"이라며 "이번 기부가 지역사회에 나눔의 가치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유기수 대표는 "전주시의회의 따뜻한 나눔에 감사드립니다"며 "소중한 기부금이 꼭 필요한 아이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권희성 기자

고창, 서해안권 거점도시로!

고창군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함께 도약하는 북은 멀지않고 고창군민 여러분과 함께 달려겠습니다

2026 병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창군의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의회 고창군의회